분류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바울의 자랑"
성경	고린도후서 12:1-10
일시	2018년 02월 25일
장소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설교	이 응남 목사

♠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12:1-10)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 요약 자료♣

바울의 자랑 (고린도후서 12:1-10)

1.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1~15)

   1) 뱀의 간계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3)
   2)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4)
   3) 광명의 천사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14)

2. 고난당한 것을 자랑했습니다.(고린도후서 11:16~33)

   1)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23)
   2)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23)
   3)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24)
   4)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24~25)
   5) 강, 강도, 이방인, 바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26)

3. 연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1)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지만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1~3, 7)
   2)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4~8)
   3)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9)
      -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녹취 자료♣

• 바울이 자랑한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잠깐 전하겠다.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란다. 진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말이다. 노예로 끌려간 요셉과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이 요셉을 산 보디발 장군을 비교해봤을 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 하시는가? 제가 질문 할 때에 손들고 대답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음에 여러분이 어디에 답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한 번 체크해 보시기 바란다. 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요셉과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은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 밖에 없는 노인 모세와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는가? 또 양을 치는 목동 소년 다윗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 임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포로로 붙잡혀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된 다니엘과 그리고 바벨론과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여러분이 지금 비교해 보았을 때에 당연히 앞에 말한 노예 요셉, 죄수인 요셉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능력'하면 보디발처럼, 또는 바로 왕처럼, 이스라엘의 사울 왕처럼 그런걸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지금 소망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어쩌면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오늘 여러분...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답을 얻으셔야 된다. 오늘 방금 말했던 보디발 장군, 바로 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 느부갓네살 왕...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을 '세상의 능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능력은 '육신적인 능력'이고 '세상 능력'일 뿐이다. 그런데 이 능력은 성경에 '거짓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단이 지금 사람들을 이 능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능력을 지금도 소망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능력'은 바로 노예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그 요셉을 향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 밖에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형제들한테도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다윗이 늘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성경에는 '진짜 능력'이라고 말한다.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다니엘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진짜 능력이라고 한다. 여러분, 참 된 능력이 무엇일까요?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겠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예전에는 이런 세상의 능력을 볼 때 사실은 기가 죽고 사실은 자격지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능력이라고 한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디발 장군은 복음의 필요를 느꼈겠는가? 애굽 왕 바로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꼈겠는가? 오히려 요셉과... 그 노예, 죄수인 그 요셉을 비방하고 멸시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답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애굽과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겠는가? 또 하나님은 어떤 교회

를 사용하시겠는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느끼는 바로 왕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 사울 왕과 바리세인들을 하나님은 쓰신 적이 없다. 헤롯 임금과 헤롯 성전을 쓴 적이 없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공통점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는 복음이 필요함을 알았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갈릴리의 촌사람들은 복음의 필요함을 알았다. 하나님은 헤롯성전의 제사장을 쓴 것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갈릴리 촌사람을 써서 세계복음화 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개인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개인과 교회인지 여러분이 오늘 분명한 답과 결론을 얻으셔야 한다. 복음만 말하는 개인과 교회, 그리고 복음 말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을 전하는 개인과 교회를 비교해 보셔야 된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찾았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자랑했다. 하나는 복음을 자랑했고, 하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당하는 고난을 자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능력을 자랑한다. 실력을 자랑한다. 돈을 자랑한다. 지식을 자랑한다. 육신적인 것을 자랑한다. 그런데 성경의 바울은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자랑했다. 결국은 공통점이 뭐겠는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사실은 능력을 자랑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말 자랑되는가? 제가 오늘 신앙의 에세이를 작성하고 있었다. 이제 RU 박사원 과정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신앙 에세이 두 장을 쓰라고 숙제가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타이핑으로 이제 저의 과거와... 걸어왔던 과거를 쭉~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 지금, 앞으로의 미래를 쭉~ 두 장에 걸쳐서 쓰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결론을 하나 얻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정말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됐다.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었으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자랑 할 것은 참 부족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오늘 바울하고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바울이 자랑했던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첫 째,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을 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바울은 계속 자랑할 때 이런 단어를 많이 썼다.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줘라." 이렇게 말한다. 왜? 자랑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부끄러운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 이 사람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 자랑하려고 막~ 그러지 않는가? 근데 사도바울은 이 자랑하는 것을 막~... 자기 자랑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나의 자랑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틀린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억지로 자랑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지나고 나서 이 교회가 지금 다른 자랑을 자꾸 하고 있다. 복음 말고 세상의 지식을 자꾸 자랑하는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혈통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자꾸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자랑이란 무엇인가를 바울은 겸손하면서도 솔직하게 자랑하기 시작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12장을 보면 바울의 그 억지 자랑이 계속 느껴진다.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설명해야 되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됐다.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임을 저는 보게 됐다. 근데 반대로 고린도 교회와 그 다른 사도들은...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다. 자꾸 다른 것... 복음 외의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을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에서 보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하겠는가? 바로 사단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렇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2절에 중요한 세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11장 3절에 보면 "뱀의 간계"라는 말이 나온다. 이 '뱀의 간계'는 곧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사탄의 꾀계가 여기에 기록 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사탄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다른 것은 자꾸 자랑하게 만든다. 그 자랑이 바로 뭐냐 하면 '자신'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다. 복음 자랑하는 것을 싫어한다. 예수님을 들어내는 것을 싫어한다. 사단이 노리는 간계는 뭐냐 하면... '너를 자랑하라.'는 것이다. 바로 지금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뉴에지가 운동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네가 바로 신이다.'라고 가르친다. 모든 종교들이 '네가 신이 될 수 있고 이런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네 힘이 어마어마하다.'라고 가르친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있다. 이 사탄의 간계를 꺾을 수 있는 길이 뭐겠는가? 그게 바로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사탄의 권세와 그의 흑암을 꺾는 길은 복음 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다. 진짜 능력은 복음이다. 복음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고 복음이다. 두 번째로는 거짓 사도들이 자꾸 틀린 것을 가르친다. 이 11장 4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예수를,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에 다른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탄의 간계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 쓰면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신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다른 게 또 필요하신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신가?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충족하려고 지금도 찾고 계신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진짜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한 번 되짚어 보셔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게 필요 없다.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다른 게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전념'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들어 왔던 거짓 사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다. 그것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참 된 행복'을 줄 수가 없다. 사도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 사도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다. 책도 많이 봤다. 또 많은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탈렌트도 많다. 그런데 그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답이 없었다.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히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말했는데 그 들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는 답을 얻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옛날게 자꾸 새록새록 관심이 보여졌다.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 말고 아직도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 없으신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하신가? 저는 한 번 자신에게 한 번 질문해 보라고 해 보고 싶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늘 소망했고 알고 싶었다.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저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책도 보고 모임도 참석하고 메시지도 많이 들었었다. 그런데 그 때 뿐이더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다. 또 많은 수련회도 참석 했었다. 또 심지어는 지식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엘리트 집단에 가서 거기에서 일도 했다. 근데 왠지 제 마음 속에는 참 평안과 행복이 안 오더라.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저는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제 신앙고백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제가 그것을 제 가슴에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은 듣기 싫어도 나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 하겠다. 왜냐 하면 제가 방황했던 시절들이 너무 후회스럽기 때문이다. '복음 외에는 다른 말 하지 않겠다.'하는 것이 제 신앙고백이다. 지금도 혹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게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이 빨리 답을 얻으셔야 된다. 누가 그러느냐? 바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이 지금도 다른 것을 자꾸 심고 있다. 복음보다 지식을 더 앞세우고... 복음보다 율리, 도덕을 더 앞세우고... 복음보다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가르친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다. 저는 부족하지만 감히 사도바울이 자랑했던 이 복음을 저는 자랑하고 싶다.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모든 목회자를 포함해 중직자, 성도,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으로 충분했으면 좋겠다. 예수 안에 참된 모든 것이 있음을 만끽하고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에게는 평탄한 삶이 없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증거하면 형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근데 사도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하시든지 피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놓여있다.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는 것을 부끄럽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그만 두셔도 된다. 혹시 주변에서 복음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다. 그러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운동 하는 분이 있다. 전 이 복음운동을 참석하고 그런 분들을 만난 것을 참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는 떠나가라 했던 종교개혁 당시에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다. "전도와 선교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교단도 해산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전도운동 단체이다.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도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 당하는 고난이 한, 두 개가 아니었었다. 한 번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한 번 읽어 보겠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당했던 고난들이다. 근데 이 고난이 쉬운 고난이 하나도 없다. 다... 모든 고난이 다 죽음과 연결된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을 넘겼는지 모른다. 우리는 평생 걸어가면서 한, 두 번 겪을 만한 일들을 바울은 늘 당했다. 그럼 벌써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그 고난을 헤쳐 나갔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고난보다 더한 뭐가 있구나.'를 알게 된 것이다. 고난이 여러분... 쉽지는 않다. 당하고 싶지 않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속에 고난보다 더 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을 감당하시라. 근데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면 여러분... 죽는다. 그 고난을 담당하신 '그 분'이 함께 하신다. 그 분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단 말이다. 고난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이더란 말이다. 여러분, 고난을 엔조이 하시라. 이제는. 배고픔? 엔조이 해보시라. 주만 바라보게 된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가? 주만 바라보게 된다. 가정과 자녀에게 문제 생겼는가? 그거 통해 주만 바라보게 된다. 저는 이 사도바울이 간증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이다. 죽어도 좋다 하고 달려들었던 사람이다. 제가 많은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쭉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한 번 읽어 보겠다. ***"23.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죽음의 고비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고비를 바울은 자랑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바로 능력 중의 능력의 비밀을 알았던 것이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앞에 놓이면 그 고난을 주님을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고 교역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도 있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제가 가져가는 데가 한 군데 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문제처럼 느껴지는 이게... 제가 늘 비교하는 한 군데가 있다. '창세기 3장 문제 보다 크겠냐?' '죄 문제 보다 클까?' '마귀 문제 보다 클까?' '죽음과 지옥 문제 보다 클까?' 그런데 나는 거기서 구원 받았다. 그걸 생각하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 그 때부터 저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문제가 오면 좀 당하면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해결 받은 것에 대한 행복을 누렸다. 진짜... 여러분의 문제를 항상 비교해 보시라. 원죄 문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비교해 보시라. 운명과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사탄의 손에서 건짐 받은 문제와 지금 있는 문제와 비교해 보시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지옥과 저주 아래 있는 그 문제에서 해결 받은 것과 지금 있는 문제와 비교해 보시라. 그 어떤 문제도 이 근본의 문제와 비교가 되지 않더라. 사도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위험도 창세기 3장과는 비교가 안 된다. 사탄과 지옥의 문제와 비교가 안 된다. 결국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끔 하나님이 인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바울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다.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또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자랑할 것을 하나 또 만들어 놨다. 왜? 이런 체험을 그들은 못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게 본인이다. 본인이 체험한 영적 사실들을 체험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진짜의 어떤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 사람이 보고 왔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다.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셋째 하늘'을 무엇을 얘기 하는가? 하늘에는 뭐 일 층 하늘이 있고, 이 층 하늘이 있고, 삼 층 하늘이 있고... 그런 것일까? 이것은 일 층, 이 층, 삼 층을 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삼(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을 설명하냐 하면 가장 높고 완전한 하늘을 얘기 한다. 곧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가장 깊은 곳을 보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 그 천국에 이끌려 가서 거기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 그 황홀

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한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낙원을 체험한 사람이다. 거기서 무슨 체험을 했을까? 관심 쓰지 마시라. 우리 알 바 아니다. 그건 바울만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무얼 체험했을까?’ 곁눈질 할 필요 없다. 어쨌든 체험했다. 체험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체험을 주셨을까? 그런 체험을 시키지 않았다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몰랐다면 바울은 벌써 줄행랑 쳤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말 하려다가 중간에 그만 둔다. 이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사람인데 무언들 자랑을 못 하겠는가? 바울이 자랑할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자랑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교만해질까봐 거기서 딱 입을 닫는다. 바로 바울은 자기에게 정해준 그 범주를 넘어서질 않는다. 그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 방법이다. 자꾸 우리가 어떤 범주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 막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교만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 육체의 가시란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겪었던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을 온갖... 가시라고 표현을 한 것이다. 그 어려움들이 이 바울에게는 너무 견디기 힘든 가시와도 같았다. 심지어는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그런다. 그 사탄의 사자는 곧 뭐냐 하면 마귀의 시험을 얘기한다. 근데 이 사탄의 시험이 오히려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했다라고 기록한다. 그 약함을 통해 진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잠시나마 말씀을 통해 답을 얻는다. 오늘 결론을 잠시 맺고 마치겠다. 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능력인 세상의 능력과 기준에 속지마시라. 여러분은 바로 왕, 이스라엘의 사울 왕,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능력’을 여러분은 갖고 계신다. 바로 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두 번째로는 나의 자랑이 복음, 고난, 연약한 것 외에 다른 것 자랑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지금 피부적으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지금 그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고 그것은 공동체의 고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다혜 집사의 동생이 그 소천 받은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그 가족의 고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다. 바로 한 가정의 고난이지만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난이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또 심지어는 우리 이경석씨가 지금 심장수술로 인해서 계속 지금 회복 중에 있다. 제가 가끔씩 병원에 간다. 대화도 못 한다.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른다. 지금 3주가 넘게 지금 계속 잠만 자고 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게 하나 밖에 없다. 가서 내가... 나 누굽니다. 라고 얘기 한다. 이응남 목사가 왔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석씨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변의 간호사들이 나를 보면 우스울 것이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잠깐 왔다가 기도하고 가니까. 근데 저는 믿는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 하심을 저는 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온다. 심지어는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온다. 근데 가는데 간호사가 손 씻으란다. 그러더라. 상관없다. 뭐 감염이 되면 뭐 감염 된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저는. 왜? 우리 형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 형제들인데 뭘 못하겠는가?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남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된다. 여러분, 고난과 연약함이 오히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더라. 여러분, 절대 불신앙하지 마시라. 생명과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지식적인 기능과 의술에 달려있지 않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이 2018년도에 치유의 말씀을 주셨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을 주께서 하시겠다고 한다. 그 증거를 가족들과 우리 부모들에게서 주시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고난도 따라오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형제와 가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로... 나의 문제로 아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진짜 말씀이 성취됨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다. 가깝게는 우리 윤다혜 집사님의 남동생의 소천을 통해서 남은 유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겠다. 또 하나, 우리 이경석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 가족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 될 수 있도록 그 가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정말 이 두 가정...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체험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 (http://www.houstonantioch.org)
담임목사: 이 응남 목사
교육목사: 황 병철 목사
연 락 처: (713) 907-0854
이 메 일: rutc-christ@hotmail.com
자료작성: 휴스턴 안디옥교회 (배성일 장로)